

검찰, 변양군·신정아씨 소환 뿔 조사하나

비호·외압, 학력 위조·로비 여부 초점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도 추궁 '부적절한 관계'·금전 지원 규명될 듯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6일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씨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다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외압·청탁 의혹 전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이 두 사람의 주변에서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던 검찰이 이날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전격 소환한 것으로 볼때 '적어도 일부 의혹에 대해 상당히 확실한 혐의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신정아씨 소환조사에서 학력 사칭·위조 경위, 2005년 동국대 교원임용, 스페인 아르코아트페어 주빈국 큐레이터 2006년 선임 및 사임 과정, 2007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 올해 2월 이후 학력위조 사건 은폐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씨의 학력위조 및 은폐 경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력위조 사실 자체는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

따라서 검찰은 신씨가 활동 과정에서 변 전 실장 등 정·관계나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호를 받았는지, 또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속여냈는지 등 '총체적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규

명함에 있어 변 전 실장, 영배 동국대 이사장,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등 이번 사건 핵심 참고인들이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올해 7월 중순 잠시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 어떤 인물들이 직간접적 도움을 줬는지 등 '범인도피' 의혹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그가 고위관료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신씨 학

동 과정과 학력위조 사건 은폐 과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변씨가 연루된 신씨 비호·외압·청탁 의혹에는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실장, 차관, 장관 등으로 있던 시절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다수 대기업이 거액을 후원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제3자 뇌물제공'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임용되던 2005년과 그 이듬해인 2006년 동국대가 교육부의 수도 관대학 특성화사업 등 명목으로 165억원을 받았다는 점과 동국대가 2006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변 전 실장을 대상으로 이 부분 관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신씨

등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해 정부 대신 미술품을 구입해 부처에 빌려주는 미술은행의 추천위원으로 신씨가 선정된 데 대해서도 선정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이 신씨 임용 대가로 동국대에 예산배정이나 기금모금 지원 등 수단으로 협조했는지 여부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가 맺어 온 '가까운 관계'의 구체적인 성격과 금전적 지원 여부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포자기 심정? 비호 세력 지시?

■ 신정아씨 왜 전격 귀국했나

두달 간 미국 뉴욕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16일 오후 전격 귀국을 결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설득력있는 설명은 신씨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확산으로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처지에 이르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귀국과 함께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씨가 불래 출국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학력위조 의혹만 가라앉으면 자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권력층 비호 의혹과 사생활에 대한 소문까지 나돌면서 가만히 잊혀지기만을 바랄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신씨는 최근 시사 주간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귀국에 대한 결심을 밝히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제가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인데요"라며 이 같은 심경을 보이기도 했다.

모든 게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태가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진화 차원'에서 귀국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교수 추천 등 변 전 실장의 외압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변 전 실장 외에 '신정아 사태'의 외압 몸통이 더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

만약 실제로 변 전 실장 이외의 비호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의 존재를 숨겨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그 비호 세력의 지시에 의해 신씨가 직접 돌아와 변 전 실장의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 여유를 자랑했던 신씨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 상태였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뉴욕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귀국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귀국 시점은 '9월 말이나 10월 초'라고 밝혔던 신씨가 변호사와의 협의 하에 귀국을 앞당긴 이유와 과연 무엇인지, 자신의 주장대로 정발 학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은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 전 실장과 연인 사이 아니다”

신정아씨 '시사IN' 인터뷰... “누드 사진은 합성”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스캔들의 대상으로 지목된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5일 시사주간지 '시사IN' 창간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정식 인터뷰를 비롯해 최근까지 수차례 '시사IN'과 인터뷰를 갖고 변 전 실장과 관계 및 비호 의혹, 나체사진 촬영 등 최근 제기된 의혹은 물론 학력위조 사실마저 모두 부인했다.

신씨는 “변 실장과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다. ‘섹스 스캔들’로 몰고가려 하는데 그런 절대 아니다. 동거라니 말도 안 된다”며 둘 사이의 증거로 알려진 이메일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알게 된 지 조금 뒤부터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지만 의심받을 만한 내용은 100%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변 전 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것은 없다. 그분의 증명사진은 한 장 있었을 텐데 명함 디자인을 해보라고 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확실한 물증’의 존재를 부인했다.

특히 동국대 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임명 과정 등에 변 전 실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은 절대 없었다”고 신씨는 단언했다.

최근 일간지에 게재된 자신의 나체사진은 사진 작가가 만든 합성사진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신씨는 “누드사진이라고는 찍은 적이 없다. 작년 봄 사진작가 황규태씨의 사진 전이 열렸을 때 전년도록에 글을 쓴 적이 있다. 갤러리에 갔더니 합성 사진이 여러



시사IN 창간호에 실린 신정아씨 사진. (시사IN 제공)

있었는데 내 얼굴에 백인 여자의 몸을 합성해 놓은 작품도 있었다. 이런 아니다 싶어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때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학위위조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에 다녔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야기를 꺼낸 신씨는 “제 입장에서 학력문제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도망을 온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확인 작업을 하러 뉴욕에 왔다”고 밝혔다.

문제의 예일대 박사 과정에 대해 신씨는 가정교사직으로 학업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지만 학업을 마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지는 변호사들이 나중에 상세히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정아씨 주식투자 200% 수익

2억여원을 5억여원으로... 자금 출처 의혹

‘신용불량자’ 신정아씨가 주식 투자로 2년도 안 돼 200%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자금출처와 투자 종목 선정, 투자시점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력형비리 게이트조사특위 소속 이재용 의원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매달 180만원씩을 갚는 처지였다. 신씨는 그러나 같은 달과 이듬해 3월에 증권계좌 2개를 개설해 총 2억1천만원을 투자했다.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 2억원에 불과하던 투자자금을 최근 5억8천만원 수준으로 불려 176%의 투자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그러나 ‘신용불량자’ 신정아씨가 어떻게 투자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변양군 전 정책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신씨가 역대 증권계좌로 주식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공개 내부자정보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연루 가능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로부터 발표되지 않은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파악해 투자에 활용,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불공정거래 의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 하지만 만약 증권사 직원의 도움만으로 종목을 바꿔가면서 단순한 시세차익만 올렸다면 불공정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연합뉴스

광주 첨단지구 폭스존아울렛이 수입명품아울렛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수입명품 30여개 브랜드 입점 확정! 이제, 수입명품아울렛에서 명품매장의 새로운 주인을 모십니다.

| | | | | | |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PRADA |



문의: 070-7430-4601~9